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보은군

보 도 자 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2년 4월 8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한마음 한뜻

- 사회 각계·각층 릴레이 결의 다져

자료문의 기획감사실 지방소멸대응팀장 방석종(☎540-3020)
담당자 전진우(☎540-3030)

보은군은 민·관이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들의 기금사업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군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결의를 다지는 릴레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릴레이홍보 첫날인 지난 7일에는 보은군 스포츠클럽 에어로빅 교실과 문화원 서예교실을 찾아가 기금사업을 설명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시작했다.

릴레이 홍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게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지방소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말까지 보은문화원 문화교실, 어린이집, 농업인단체 등 관내 민간사회단체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날 홍보에 참여했던 스포츠클럽 이용자는 "평상시에도 보은군 지방소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해 지방소멸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으로 전국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고시된 89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꿈 :나르는 빨래방 개소 1주년

-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장 김경희(☏540-3846)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은 지난 7일 관내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꿈 : 나르는 빨래방' 을 운영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꿈 : 나르는 빨래방' 은 이불, 매트 등 대형세탁물 세탁이 어려운 지역 내 노인・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지원해주는 원스톱 세탁서비스이다.

아울러 보은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직업훈련생이 협업해 운영하는 새로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꿈 : 나르는 빨래방' 은 주3회 (월,수,금) 대형세탁물 세탁과 함께 사회복지사, 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연계해 주2회(화,금) 수거 및 배달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배달부를 양성하고 파견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난 1년간 보은군 11개 읍・면 노인・장애인・조손가정 362가정에 1,038채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북면 법주리에 거주하시는 장모 어르신은 “겨울이 지나면서 큰 이불을 빨지도 못해 냄새나는 이불을 쌓아뒀는데 이렇게 직접 수거해 봄꽃냄새 가득한 깨끗한 이불로 다시 가져다 주니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미선 관장은 “11개 읍·면을 정기적으로 순회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라며, “순회시 이동상담, 여가 프로그램을 병행해 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회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자료문의 회남면 복지민원팀장 조덕희(☎540-4251)
담당자 박수현(☎540-4252)

보은군 회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중은, 송선호 면장)가 지난 7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 3대를 지원했다.

이번 보행보조기는 견고한 바퀴와 경량으로 쉽게 이동과 보관이 가능하고, 이동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납가방이 부착돼 있으며 안전을 위한 주차 브레이크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저소득층 노인 3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직접 전달하고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노인들을 위로했다.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구모 어르신은 “굽은 허리 때문에 외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보행보조기를 통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류중은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노인들이 낙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버려진 유모차를 보행보조기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거동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